

1990. 9. 4. 동아일보

古下 宋鎮禹 선생 탄생百周 고향 潭陽에 기념비세운다

全南 潭陽군민들이 古下 宋鎮禹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건립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潭陽군金城면帶谷리태생인 古下의 탄신1백주년을 맞아 향리주민 30여명이 지난 5월 15일 기념비건립추진위(위원장 金性洙·71·潭陽郡 법정회



宋鎮禹선생

장들 결성했다.

추진위는 높이 2.8m의 오석으로 된 기념비를 潭陽 音萬成리 담양공원에 세우고 선생의 업적을 비문의 새겨 오는 10월말경 제막할 계획.

古下 기념비를 건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古下의 손자인 宋相現씨(50·서울대법대교수)가 2백만원을 潭陽 邑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주민들 추진촉결성...담양공원에 10월말 제막

鄭洪喆씨(56)가 50만원, 담양 경찰서 宋大永경사(50)가 10만원을 내놓는 등 현재 1백 52명이 2천5백만원의 성금을 추진위에 기탁했다.

기념비추진위 金性洙위원장은 古下 탄신(5월3일) 1백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선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으나 정작 선생이 태어난 潭陽에서는 선생을 추모할 흔적 하나 없어 부끄럽게 생각해오다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古下 宋鎮禹선생은 1890년 潭陽에서 태어나 潭陽 邑平 英學塾에서 신학문을 익혔으며 일본 메이지대 법과를 졸업했다.

선생은 27세때 潭陽학교 교장에 취임했으며 3·1운동 때 체포돼 1년반의 옥고를 치른후 21년 동아일보 3대 사장으로 취임, 36년 일장기 발상사건으로 동아일보가 무기정간당할때 총독부의 압력으로 사직장을 사임했다.

〈潭陽=張喆鎬기자〉